

# “조희대는 답하라” 14일 대법원장 사상 첫 청문회 열린다

### 국회 법사위 ‘조희대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 대법관들 증인 채택 출석여부는 ‘불확실’...26일 전국법관대표회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무죄 판결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오는 14일 국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가 열린다.

11일 법조계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오전 10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연다.

대법원은 지난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했고 청문회도 열기로 했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가 열리는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다.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여럿 포함됐다. 이들이 실제로 증인으로 출석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학 동기로 친분이 있다고 알려진 서석호 변호사를 비롯해 이성민 법원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서보학(경희대)·이준일(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관련 헌법소원을 낸

조영준 변호사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실제로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법관들이 자신이 맡았던 재판과 관련해 국회 등 법원 외부의 질문에 답하는 것 자체가 사법부 독립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는 게 법조계의 주된 시각이다.

실제로 국회 국정감사나 현안질의 등에도 재판에 관여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행정처 간부들만 출석할 뿐 대법원장이나 다른 대법관, 재판연구관 등은 출석하지 않는 게 관례다.

이 후보 재판이 현재 진행형이라는 문제도 있다. 대법관들이 청문회에 나가 판결에 관해 발언한다면 그 자체로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파기환송심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비슷한 이유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청문회와 유사한 국정감사·국정조사가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법원 안팎에서는 이 후보 판결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대법원은 선거법 사건의 법정 선고기한 내 처리를 강조하는 기존 입장에 따른 집중심리 결과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의 심리·선고를 서둘러 정치적 중립을 의심받을 실마리를 제공한 게 잘못이라는 주장, 민주당이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에 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세 번째 재판을 하루 앞둔 11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12일 윤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청사 서관 출입구로 들어오는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한 지나친 침해라는 견해가 동시에 제기된다.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법관 대표로 구성된 전국 법관대표회의는 오는 26일 열릴 예정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尹, 오늘 포토라인 선다...檢, 김건희 소환통보

### ‘내란 혐의’ 세번째 재판...명태균 연루 공천 개입 의혹 수사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세 번째 재판이 12일 열린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0시 15분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세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청사 서관 출입구로 들어오는 모습이 이날 처음으로 공개된다.

법원이 지난 두 번의 재판 때와 달리 지하 주차장을 통해 출입하게 해달라는 대통령 경호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이 자연스럽게 취재진의 포토라인을 지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포토라인에 서서 입장을 밝힐지도 관심사다.

포토라인은 통상 사법부 내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법원과의 조율을 거쳐 취재진이 자체적으로 임의로 설치해왔다.

한편,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이번 주 소환 조사를 받

으라고 정식으로 통보했다.

여러 차례 구두 요청에도 김 여사가 별다른 응답을 하지 않자, 김 여사 조사를 더는 지체할 수 없다고 보고 공식적인 출석 요구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검찰은 김 여사가 계속 불응할 경우 강제 수단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의 첫 검찰 출석 조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최근 김 여사 측에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검찰은 이번 주 중 하루 검찰청에 출석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지검 수사팀은 2월 창원지검에서 명씨 사건 일부를 넘겨받은 뒤 김 여사 측에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구두로 전달했으나, 김 여사 측이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아 실질적인 일정 조율은 이뤄지지 못했다.

/연합뉴스

## 새 교황 레오 14세 선출...2027년 한국 온다

### 역대 4번째 방한...미국 출신 “평화가 모두와 함께 있기를” 메시지

지난 8일(현지시간) 바티칸에서 열린 콘클라베에서 267대 교황으로 선출된 로버트 프랜시스 프레스코 추기경(교황명 레오 14세·사진)은 오는 2027년 한국을 방문할 전망이다.

교황 레오 14세의 한국 방문이 점쳐지는 것은 전임자인 프란치스코 교황이 2023년 8월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린 세계청년대회(WYD)에서 차기 2027년 개최지를 서울로 결정한 것과 연관돼 있다. 지구촌 가톨릭 젊은이들의 신앙 대축제인 세계청년대회는 교황과 청년들이 만나는 행사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재위 중 1984과 1985년 바티칸으로 각국 젊은이들을 초청한 것을 계기로 1986년 본격 시작했다.

교황 레오 14세의 방한이 이뤄지면 한국에 오는 역대 3번째 교황으로 된다. 레오 14세의 방한은 교황의 4번째 방한으로 1984년과 1989년 요한 바오로 2세가, 2014년 프란치스코가 온 이후 13년 만에 방한이 이뤄지는 셈이다.

특히 레오 14세는 여러 차례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다. 성 아우구스티노 수도회의 한국지부 ‘성 아우구스티노 수도회’(이하 한국지부)에 따르면 레오

14세 교황은 이수도회 총장 시절인 2002년, 2005년, 2008년, 2010년 네 차례 방한해 한국지부 수도자와 만나거나 지부 총회에 참석했다.

교황이 참석하는 세계청년대회에서는 교황이 직접 세계 각국 젊은이들을 만나는 것이 정례화돼 있다. 중간에 교황이 바뀌더라도 약속을 지켰다. 일례로 2005년 독일 쾰른에서 세계청년대회를 열기로 한 것은 요한 바오로 2세였으나 그가 대회 4개월 전 선종하자 후임 베네딕도 16세가 쾰른을 방문했다.

일반적으로 세계청년대회가 개최되면 각국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임에 따라 경제적 측면에서 상당한 생산 유발 효과는 물론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교황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국제사회를 향해 메시지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과 이로 인한 분열과 대립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그의 메시지는 상당한 파급력을 끼칠 수 있다. 또한 서울 방문과 맞물려 교황의 방북 프로젝트가 다시 추진될지도 관심 포인트다.

한편 267대 교황에 선출된 프레스코 추기경은 지난 1955년 시카고에서 태어났다. 지난 1982년



세계 서품을 받았으며 오랫동안 페루에서 선교사로 활동한 바 있다. 2015년 페루 시민권도 취득했으며 같은 해 페루 대주교로 임명되기도 했다.

그는 8일(현지시간)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전에서 발표한 첫 강복 메시지에서 균중을 향해 이탈리아어로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있기를”이라고 말했다.

제267대 교황이 선출되자 세계 각국 정상들은 놀라다는 반응과 함께 축하 메시지를 발표했다. 사실 도덕적 권위 차원에서 초강대국인 미국 출신의 교황은 아직까지는 시기 상조라는 분위기가 있었다. 특히 세계를 대상으로 관세와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재임이라는 시기도 미국 출신의 교황이 선출되는 데 대한 부정적 요인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그가 첫번째 미국인 교황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정말로 영광”이라고 언급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연합뉴스

**광주일보 73년 - 유튜브 2천만뷰 돌파**

# “시를 꽃처럼 피워 주변을 시꽃으로 밝히고 싶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상처 받아도 시가 만나야 할 궁극적인 대상은 사람입니다.

## 조선의 시인 문예지 ‘시꽃피다’ 창간



### 조선의 시인

농민신문신춘문예 당선, 기독교신문에 당선, ‘미션21’ 신춘문예에 당선, 상상인 작품상, 송순문학상, 김만중문학상, 거제문학상, 신석정충북문학상 등 수상.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입의 문장’,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밀서’, ‘꽃으로 오는 소리’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장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장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장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

